증산문중 묘제 거행

음력 10월 8일에는 달성서씨 감찰공파 증산문중 입향조의 묘제가 매곡 증산사에서 거행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문중원이 모여 묘제를 지내지 못하고 고유제로 간소하게 진행했었다. 3년 만에 전체 문중원이 묘제를 진행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얘기도 나누다 보니 사람사는 세상이 온 것 같다. 전 문중원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글/사진 서영수 기자

당산 국화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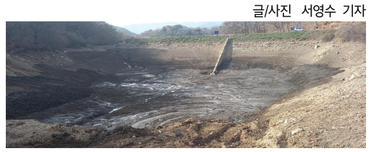
2022년 양산국화향연이 황산공원에서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렸다. 축제를 마친 국화를 우리 마을에 가져와서 당산에 심었다. 꽃이 있는 당산이 더 아름답다. 수고한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

글/사진 송영숙 기자

저수지 준설공사 및 수문 수리

매곡 저수지는 농업용수뿐 아니라 마을을 대표하는 구경거리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평온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하면서 준설공사도 하고 있다. 물 빠진 저수지가 황량하다. 다시 물이 가득하고 새와 물고기가 노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글/사진 서영수 기자



[추억의 사진]

상남댁 서병율 어르신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현재 경로회장이 젊었을 때이고
함께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네요.
집에 이런 보물들을 소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원수 010-9289-1046)

칠곡 유곡정사 묘제 및 담장 재개발사업 동참비 제막식

음력 10월 7일에는 달성서씨 감찰공파 파조의 묘제가 칠곡 유곡정사에서 진행되었다. 유곡정사는 담장 재개발사업을 하였는데 증산(매곡)문중에서 많이 동참하였다. 이 날 동참비 제막식과 감사패를 수여하였는데 증산문중과 서연호를 비롯하여 감사패를 받았고 특히 수고한 서창기 문중원은 공로패를 받았다.

글/사진 서영수 기자

매곡외산로 가로수 식재

매곡외산로에서 몇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현상으로 일어났다. 이번에 가로수를 심어 조경과 교통안전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글/사진 서원수 기자

서영수 조합원, 농협중앙회 회장 감사패 수상

2022년 10월 25일 금융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농협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서영수 조합원이 농협중앙회 회장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사진 웅상농협 제공

마을 산책길 조성

카페 홍재에서 진슬농장 방면으로 산책길이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글/사진 서원수 기자

쓰레기 무단 투기

아랫마을 대각정 아래 하천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현장이다. 신고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여 근절하기보다 안 버리는 게 최선이겠지요? 아름다운 매곡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글/사진 서원수 기자

자투리 소식

2022. 10.06.	경상남도 마을수도 지하수 검사
10.10. 외	경로당 식사(매월 10일 정기모임)
10.15.	울산 충의사-울산 임란의사 숭묘회
10.15.	양산의 문화자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천성문화포럼 세미나
10.16. 외	매곡9경 구경가세' 5회 실시
10.16.	내인댁 서원기 본인상
10.20.	창표사-임란의사 56위 추모제
10.21.	덕계동 국토대청소
10.22.~11.13.	2022 양산국화향연
10.25.	웅촌거주 서외기 본인상
10.27.	덕계동 유관기관단체 선진지견학
10.27.	서정호(청년회 총무) 서창동 '바다품은 회' 개업
10.31.	유곡정사 묘제
10.31.	카페 홍재 마을주민 식사 대접
11.02.	증산문중 묘제
11.11.	매직페스티벌 관람
11.12.	경로회 야유회(청풍호)
11.14.	매곡당산 국화심기
11.18.	서철기 웅상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
11.23.	예동댁 서욱식 본인상
11.25.	증산문중 청년회 회장단 회의
12.12.	덕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불사 전기화재예방 멀티콘센트 지원
12.14.	매곡마을 주민총회

후원내역

일 자	성 명	금 액(원)	비고
2022.10.11.	서동진	30,000	
12.09.	전해광	50,000	
합 계		80,000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신정일, 서부기, 서웅기, 서원수, 서상률은 정기후원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원합니다.

계좌번호 안내

농협 351-1066-5389-53 매곡마을신문

매곡마을신문
양산 최초 마을신문

발행인 서재수
편집국 서웅기 국장, 서동만 부국장, 서영수 부국장
기 자 강열우, 김현숙, 박순이, 서원수, 서정수, 서정호, 송순금, 송영숙, 이동원, 정성원, 허혜정
재 무 송영숙
전 화 010-9289-1046
이메일 s5851@hanmail.net
인쇄처 덕계인쇄사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외산로 216

매곡마을신문

양산 최초의 마을신문

촌사람 이바구 제작소 /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외산로 216 / 2017년 1월 1일 창간 | 신고번호 (양산, 바9호) | 제25호 2023년 1월 1일(일) 발행

매곡9경 구경가세

매곡9경 구경가세는 매곡마을의 9가지 자연경관을 스토리로 역어 만든 마을 관광길입니다. 9가지의 재미있고 뜻깊은 스토리로 즐겨보세요. 1경~9경은 2시간 소요, 1경~5경은 40분 소요되며 5경에서 6경까지는 경사가 있는 길이라 주의를 요하는 길입니다.

10월 16일부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모임에서 참여를 하였는데 해설을 마을 주민들이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솔한 안내에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둘레길은 많지만 함께 설명을 듣고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글/사진 정성원 기자

매곡마을 총회 개최

2022년을 결산하는 '마을 총회'가 12월 14일 11시에 '꽃피는 시골 그 집'에서 마을 주민 약 50명이 참석하여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서재수 이장으로부터 그간 마을 활동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을 보고 받고,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날 총회에 올라온 2022년 결산 승인 건은 원안 통과 되었고, 장학회 보고가 있었다.

글, 사진 서영수 기자

창간 6주년 축사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창간한 매곡마을신문이 계속 발행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지 벌써 창간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곡마을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되돌아보니 옛날의 농촌마을 모습은 많이 변하였습니다. 마을 진입 도로(덕계4거리~마을 당산)는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었고, 1차 마을 안 길(마을 당산 ~ 수남웅디)이 확장되었으며, 2차 마을 안 길(수남웅디 ~ 삼거리 입구) 공사가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차량 통행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건의로 이루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가 마을신문에 소개되어야 소통, 화합할 수 있으며 마을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마을신문 기자임을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서 재 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매곡마을신문』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곡마을신문』은 웅상 지역에서 발행된 최초의 마을신문입니다. 매곡마을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는 정겨운 이야기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매곡마을신문』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양산의 공동체 정신이자 보배입니다.

창간 6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그동안 녹록하지 않았을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신 서재수 발행인을 비롯한 매곡마을 주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을을 향한 사랑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마을신문을 만들기까지 주민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매곡마을의 이야기를 나눴을 시간을 생각하니 여러분께서 얼마나 매곡을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신문은 마을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또, 발간된 신문을 이웃과 함께 읽으며 나누는 이야기는 마을 공동체의 귀한 양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뿌리는 건강한 지방자치의 시작입니다. 지방자치의 거대한 흐름에서 『매곡마을신문』의 창간 6주년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매곡마을신문사 서재수 대표님과 매곡마을 주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양산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정겹고 따뜻한 신문으로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김 두 관

매곡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5일자로 덕계동으로 부임해 온 박은미 동장입니다.

유난히 덥고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맞이하는 가을은 그 어느 때 보다 설렘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코끝을 마비시킬 만큼이나 제법 찬 기운이 돌며, 구름이 작품이 되어 버린 하늘 풍경은 가을을 재촉하느라 손짓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찬란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마을 소식지를 통해 매곡 주민들께 글로 전하는 인사가 마치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팔순 노모께 바쳤던 편지를 썼을 때 마냥 온 마음을 훑고 지나가는 아쉬움과 애잔한 감정들이 되살아나 그리움의 나이테를 한 줄 더 긋게 만들었습니다.

매실나무가 있는 곳이라하여 매곡이라는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매곡마을은 예쁜 이름만큼이나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어 내려온 삶의 질서가 흩어러지지 않도록 자연마을의 전통은 보존하며, 생활 환경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세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완전 회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순 없지만 현재는 노력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기에 덕계동 주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행정이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매곡마을 신문이 주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녹여낼 수 있는 고향 같이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는 소식지가 되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덕계동장 박 은 미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양산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내년 시행 대비 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부자가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양산에서도 시행된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담은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지정 금융기관에 기부금 사무처리 위탁,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과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부자들이 주소지 이외에도 고향을 비롯한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다가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됐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특히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 16.5%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자가 양산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양산시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양산시도 기부금을 모집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다.

양산시 조례안에 따르면 답례품 품목은 ▲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양산지역 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답례품 품목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심사를 위한 7인 이하의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관리·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을 지원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창구가 될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복안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균형 및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신문 2022.10.05. 기사발췌

빛 바랜 이야기

박 순이

그 옛날, 우리는
사랑이었던가?
날 좋아한다던 고백
이제 내 가슴에
남아있지 않은데

어쩌다 눈에 띈
빛바랜 일기장
그날의 이야기는
시름도 잊었어라

저, 화려한 꽃잎
짧시 머물다
거짓말처럼 지고마는
후회없는 삶인 것을

꽃피고 지는 일에
고운 님 생각날까?
서러우면 서럽다고
생각나면 그만큼
고개 내미는 얼굴이여.

카페 홍재 마을 어르신 식사 대접

10월의 마지막 날에 카페 홍재(안정희, 박미란)가 마을 어르신을 위하여 "꽃피는 시골 그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였다. 가을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인정입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고 카페 홍재는 번창하길 빕니다.

글/사진 송순금 기자

제17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관람

지난 11월 11일에 강열우 집행위원장의 안내로 17년간 진행 중인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을 관람했다. 매년 보는 공연이지만 더욱 신기하기만 하다.

글/사진 정성원 기자

[2022년 다됨더 참관기]

"이귀주 씨가 한번 써 보시죠."

11월 30일 수요일, 커뮤니티 도서관 "다됨더"의 2022년 마지막 수다방의 수다에 한껏 기대 부풀어있던 나는 먹고 있던 기정떡이 목에 걸릴 뻔 했다. 2023년 1월 1일이면 매곡마을 신문이 창간 6주년이 된다며 마을 신문으로서의 특별함에 대해 말씀들 나누고 계셨다. 강열우 관장님의 그 말 한마디에 뒤 수다들은 기억이 잘나질 않는다.

"이귀주 씨는 올해 수다방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고... 단오굿 축제도 오셨으니... 수다방 참관기라고 생각하시고..." 서원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강열우 관장님의 나이키 정신. "Just Do It!" 아아아 그리고 우리 도서관 이름은 "다~됨더!"

반백살이 넘은 나이 덕분에 3월 첫 수다방의 공지를 어느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가물가물하다. 강의 듣는 것을 좋아라하지만 15명 남짓의 낯선 소모임 자리는 어색하기만 했다. 첫 강사님답게 유쾌한 입담과 연륜이 묻어있는 내용은 참석자들의 뻣뻣한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나이와 성별, 하는 일에 관계없이 누구든 환영하고 무엇이든 얘기하고 어떤 것이든 나누는 곳이 될 수 있을 거란 첫인상을 받았다.

두 번째 모임을 가진 4월에, 5월 매곡마을 단오 굿축제를 한다는 공지를 하셨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갔다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래서일까? 나는 시골장터와 시골 축제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마음이 콩닥콩닥했다. 부산에 계시는 엄마께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다. 무한리필 공짜 소고기 국밥이 통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정작 외모지상주의 엄마가 추억으로 간직한 것은 키 크고 잘생긴 색소폰 연주자와 배꼽 내놓은 향단이였다. 엄마집의 화장실 옆 액자위에는 축제 때 받은 알록달록 응원공이 액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놓았다.

따뜻한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며 회를 거듭할수록 만나는 얼굴들이 낯익어졌고 그 얼굴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3년 전 전국에 쓰나미 같은 열풍을 일으켰던 "미스터 트롯"을 사랑들은 잘 알 것이다. "김희재"라는 가수의 유명한 멘트가 있다. "희며드세요~" 김희재 가수의 매력에 스며들라는 뜻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됨더 수다방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오시는 강사님들의 명강의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기타에 맞춰 부르는 합창이, 눈감고 감상하는 시 한편이, 강의를 듣고 나누는 성찰이 친근하고 풍요로웠다.

가을 자락에 단체 카톡방으로 전해들은 매곡마을 워킹투어를 통해서도 마을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열우 관장님의 "쓰리 보이즈 리턴즈" 연극 관람을 위해 원피스에 맞는 뽀족구두를 신고 갔던 게 화근이 되어 발에 병이 생겼다. 워킹투어를 사진투어로 대신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굳이 MBTI검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내성적인 내가 어떻게 이런 졸고라도 쓸 마음이 생겼을까? 겨울로 들어선 마지막 수다방에서 마을 발전에 대한 샘솟는 아이디어를 "여과 없이" 읊어대시던 관장님과 "여지없이" 반응하시는 국장님의 티키타카를 보는 내내 웃음을 멈추기가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접하기 힘든 강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감사함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나'를 먼저 내세우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전해졌었다. 커뮤니티란 말에 걸맞게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시는 게 보여서였다. 밤잠 설쳐가며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됨더의 다양해짐과 매곡마을의 발전을 기원해본다.

작가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느낄 기회를 주신 강열우 관장님과 넌지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신 서원수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다됨더를 통해 만난 분들이 새해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다.

글 이귀주 객원기자

서영옥 (주)화인테크놀리지 대표,
어르신 복지 증진 위해 통 큰 기부

양산노인회 노인복지기금 일환으로 1천만원 기탁
서춘계 신임 지회장 임기 동안 총 4천만원 약속
"어르신 공경하는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 이바지"

서 대표는 지난 26일 (사)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이하 양산노인회)를 방문해 노인복지기금의 일환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더욱이 올해 4월 취임한 서춘계 지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해마다 1천만원 기탁을 약속, 4년 동안 모두 4천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이에 양산노인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의 날'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며, 보다 많은 지역 내 어르신을 한자리에 모시기 위한 행사 지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과 노인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춘계 지회장은 "지역 내 5만 5천명의 노인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신 지역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과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살아오신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에 대한 표현"이라며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아현 기자 2022.09.27 양산시민신문

매곡 경로회 가을 야유회 실시

11월 12일 매곡마을 경로회에서 30여명이 충북 단양 청풍호 관광을 다녀왔다. 경로회원과 전·현직 부녀회장이 동행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회나루터에서 개운중학교 동기회 관광을 온 양동댁 서부기씨를 만났다. 더 반가운 소식은 원주에 사는 서병계씨가 동기회 관광 온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가 마을 어르신들 관광소식을 듣고는 1시간 30분동안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찬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나들이 잘 하시라고 많은 찬조를 하여 잘 다녀왔습니다. 내년 봄에도 나들이 약속을 하였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글/사진 송순금 기자

덕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불사 '부모은중선원 실버타운'에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멀티콘센트 지원

양산시 덕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은미, 민간위원장 박해석)는 12월 12일 매곡4길 천불사 '부모은중선원 실버타운'에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멀티콘센트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덕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에너지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홀몸 노인 등)이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지원했다.

박은미 공공위원장은 "강추위가 시작되면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 혹독하게 느껴지게 마련인데 덕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온기나눔 사업을 기획해 에너지빈곤층에게 지원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서원수 기자

서영옥 (주)화인테크놀리지 대표, '여성공학인대상' 선정

제13회 여성공학인대상에서 산업 분야 수상
기술 개발·경영 능력 등 산업 발전에 이바지
"평생 공학인으로 살아온 삶의 훈장 같은 상"

서영옥 (주)화인테크놀리지 대표가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 여성엔지니어들 본보기인 '여성공학인대상'을 수상했다. 서 대표는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여성공학인대상'에서 산업 분야 여성공학인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가 주관한 여성공학인대상은 산업·교육·연구·공공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여성공학인 본보기에 적합한 우수 여성공학인을 발굴해 해마다 포상하고 있다.

서 대표는 탁월한 기술 개발과 경영 능력으로 공학기술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대표는 "경영인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대한민국 여성공학인대상은 평생을 여성공학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마침표 같은 느낌으로, 그 어떤 수상보다 가슴 뭉클하다."며 "'세상을 바꾸는 여성엔지니어가 되자'는 일념으로 공학인으로 산업현장에 진출한 모든 여성공학인들 행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대표는 (주)화인테크놀리지를 운영 중인 여성경영인으로, 혁신제품인 산업용 반도체 테이프를 생산해 2013년 1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8년 벤처기업 최초 금탑산업훈장 수훈, 양산시 고용 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발전 지원, 장학금 지원, 꾸준한 봉사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난해 양산시 선정 '양산시민대상'과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존경하는 기업인'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엄아현 기자 2022.11.21

華谷 徐東雲의 漢詩

瑞雪(서설)

銀花飛溜樂童來(은화비류낙동래) 눈꽃이 날리니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고
雪繡山河別界開(설수산하별계개) 눈으로 수놓은 산하는 다른 세상이 열렸다
萬里風飄前洗垢(만리풍표전세구) 온 세상에 눈바람이 휘몰아치니 때를 씻는 듯 하고
千峰日照潔淸埃(천봉일조결청애) 천봉에 해가 비치니 티끌 없이 깨끗하고 맑다
白鹽積載應無患(백염적재응무환) 흰 소금이라면 쌓아서 응당 근심이 없고(부자되어)
玉屑潛藏豈有財(옥설잠장기유재) 옥설(눈)을 저장하여 어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大地非春英着樹(대지비춘영착수) 대지는 봄이 아닌데 나무에 꽃이 붙어 있고
天功畵幅感懷催(천공화폭감회최) 하늘이 만든 한 폭의 그림이 감회를 재촉하네.

김현숙의 맛칼럼

전어무침

재료
전어, 능이버섯, 사과, 양파, 쪽파(부추), 청양고추 1개, 초고추장, 매실액, 통깨

만드는 방법
1. 능이버섯은 밑동부분 흙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끓는 물에 데치고
2. 사과, 양파를 채로 썰고
3. 청양고추, 파 등을 썰어
4. 전어를 먼저 초고추장에 버무린 후
5. 능이버섯 등을 나머지 재료와 함께 무침해서 드시면 됩니다.